

한국에서 조선족이모로 살아가기

: 조선족 육아·가사도우미의 삶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Living as a ChoSun-jok Aunt in Korea

: Hermeneutical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Life Experience of
ChoSun-jok Female Domestic Worker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전임강사 이 송 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홍 기 순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손 여 경

Dept. of Family Welfare, Soongeui Women's Col.

Full-time Instructor : Lee, Song-Yi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

Ph.D Candidate : Hong, Gi-Sun

Dept. of Social Welfare, Open Cyber Univ.

Full-time Instructor : Son, Yeo-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ChoSun-jok female domestic worker's experience in a Korean home. This study adopted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which was developed by van Manen. The participant for this study was a ChoSun-jok woman who had worked as a care-giver and housekeeper in Korean home for more than 2 years.

She missed the time when she was raising her own daughter and son and expected the time that her family would be together. So, her present time wears away for her stable future in Korea which give an opportunity to make a good money. Also, she realized that she was a marginal existence : it meant she was neither a family member nor truly worker. She nursed the Korean children and did for the Korean family for money but wanted to be treated as a family member like a grandmother who could be honored about what she had done for the family. She felt that she was disregarded from the family when she miscommunicated with them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cultures.

She anticipated that she was appreciated for being here in the Korean home.

▲주요어(Key Words) : 조선족이모(chosun-jok female domestic worker), 대리양육자(care-giver),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al phenomenology), 조선족 이주여성(chosun-jok female immigrants)

* 주저자·교신저자 : 이송이 (Email : songyilee@empas.com)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문제에 대한 사적인 해결책으로 입주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선호하였으나, 내국인은 입주 가사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조선족 여성이주자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이주한 중장년 여성들이 입주 가사노동자로 많이 취업하였다(이주영, 2005).

최근 맞벌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조선족 여성들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경향신문, 2007.10.24),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가사·육아도우미의 규모에 대해 해마다 집계되는 공식적인 통계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02년을 기준으로 만 명이 넘는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서 입주 가사서비스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2002), 통계청의 외국인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여성근로자의 수는 2006년 37,477명, 2007년 40,531명, 2008년 99,336명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¹⁾ 이 중 가사를 돕고 양육을 보조하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만 3,802명으로 가구당 1인 이상 고용할 수 없는 등 고용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신고되지 않은 가사도우미 및 보모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경향신문, 2007.10.24)하는 정도이다.

통계적으로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 육아와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족이모'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조선족이모'는 맞벌이 엄마를 대신하여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조선족 여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로서 이들은 주로 고용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형'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가정의 가사도우미와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오펜(연변)아줌마'라고 불리다가 최근에는 보다 친근한 표현인 '조선족이모'로 통한다.

조선족이모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다른 이주여성에 비해 언어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고 관습이 유사하다는 특성 때문에 한국 엄마들로부터 가

사 및 육아도우미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조선족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 일이 다른 일에 비해 더 익숙하고 신체적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매월 12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의 보수에 숙식제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직종 중 하나이다.²⁾

최근 한국사회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다른 직종에서 일하던 조선족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나서면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일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가사 및 육아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가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맞벌이가정에서 일하는 조선족이모의 양적 증가가 예상되며, 이들의 가정 내 역할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영향력 또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족과 우리의 생활양식 및 자녀양육방식,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육아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한국 엄마들이 조선족이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조선족이모들의 문제는 보수 등 근무조건에 따른 잦은 이직, 음식조리방법의 차이, 위생 및 청결관념의 차이, 아동양육기술 부족, 오랜 TV시청이나 전화잡담 등과 같은 생활양식에 대한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족이모가 한국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경험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그동안 육아 및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조선족이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족 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 및 적응, 문제점 등에 대한 것이거나(강유진, 1999; 홍기혜, 2000; 임경혜, 2004; 손은록, 2005; 이해웅, 2005; 최금해, 2006; 김경신·이선미, 2007; 안혜옥, 2007; 김덕자, 2008), 조선족 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에 대한 것(이진영, 2003; 립화, 2005; 이주영, 2005; 문경희, 2006; 이해경 등, 2006; 허라금, 2008; 강이수, 2009; 박준성 등, 2009)들이 다수를 이룬다.

이러한 조선족 여성 관련 선행연구 중 이주영(2005)과 박준성 등(2009)의 연구가 조선족 여성의 이주동기와 가사노동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주영(2005)은 입주형 가사도우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조선족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간의 인터뷰를 통해 입주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가지는 총체적 인간이기보다는 오직 서비스 노동을 하는 한국사회의 하층계급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조선족여성들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의 삶의 총체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의 다양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한다고 분석하였다.

2) 가사 및 육아도우미 구인구직 온라인사이트 시터넷(<http://www.sitternet.co.kr>)에 등록된 조선족교포의 근무조건과 이모넷(<http://www.iiimo.net>)에 등록된 조선족이모의 근무형태 및 보수수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2007년 3월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취업문호를 넓힌 방문취업제(H-2)가 시행되어 그동안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국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 유효 사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에게는 1회 입국 시 3년간 계속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선족 여성근로자의 입국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요건은 국내에 친족, 효적이 있는 동포이거나 국내연고가 없는 동포로 이 경우는 쿼터제한을 받는다. 취업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이다.

최근 박준성 등(2009)에 의해 수행된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의 이주동기와 일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11명의 조선족 여성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을 동포의 나라, 즉 고향의 땅이라고 알고 왔지만 실생활에서는 부적절한 처우와 정서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주영(2005)의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의 가사노동경험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3개월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동안 몇 차례의 심층적인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조선족 여성이 한국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삶과 관계의 측면에 대한 탐색과정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웠다. 한편 박준성 등(2009)의 연구는 노동을 위해 입국한 조선족여성과 결혼 이민여성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주동기의 구분 없이 연구가 진행되었고 심층면접 또한 2-3회에 걸쳐 짧게 이루어졌기에 입주형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조선족어모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선족어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으로 볼 때, 한국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또 다른 가족'으로 살아가는 조선족어모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수행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조선족어모'의 삶에 대해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며, 나아가 조선족어모에 대한 사회적 대안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 방법: 해석학적 현상학의 적용

한국가정에서 일하는 조선족어모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을 적용하였다. 이는 인간의 일상적 생활세계(life world)에서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한 부류로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생활체험(lived experience)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태현·노치영, 2003). 현상학적 접근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일체의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05). 개인의 언어로 드러난 사건은

하나의 의미로 해석된 것이며(조용환, 1999), 해석된 체험은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본질과 심층적 의미가 되살아난다(van Manen, 1990).

해석학적 현상학에 대하여 van Manen(1990: 26-52)은 일상적 경험에 대한 회고적 반성을 통해 그것의 본질과 의미를 연구자의 모든 판단이 중지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실천이라고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어떤 현상에 대한 현상학적 질문과 실존적 탐구, 개인의 체험에 대한 반성, 그리고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를 분석하고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참여자의 체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밝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족어모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경험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 질문에 대한 심층적 탐구의 최종 목적은 조선족어모가 경험하는 체험(lived experience)을 van Manen의 네 가지 기본적인 실존적 주제(existentials), 즉 체험된 신체(lived body),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공간(lived space), 그리고 체험된 관계(lived others)의 맥락에서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모든 타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학적 현상학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다.

2. 연구 과정

1) 연구 참여자 선정 계기 및 이유

연구 참여자를 알게 된 계기는 2007년 11월경으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연구자와 조선족어모가 함께 기다리면서부터였다. 처음 만남에서 연구자가 '아이 할머니이시냐'고 묻자 연구 참여자는 '가정부'라고 대답하였다. 아이들이 서로의 집을 방문함에 따라 연구자와 조선족어모의 친분이 쌓이고 한국에서 조선족어모로 생활하는 이야기들을 수시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1인을 대상으로 조선족어모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 것은 연구자와 2년 이상의 교류를 가진 조선족어모의 삶을 오랜 기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실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처음 만난 2007년 초겨울부터 이후 2009년 10월까지의 대화과정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회에 걸쳐 이루어진 심층면접, 연구 참여자가 살고 있는 가정의 방문을 통한 관찰, 참여자의 가족사진 및 연구 참여자의 소지품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핵심적인 자료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것,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심층면접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심층면접을 하기 전에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서로가 주고받는 내용이 글로 표현되고 출판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진행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6회의 면접이 이루어졌고, 면접시간은 1회당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3) 주제분석

연구 참여자를 심층면접 하는 동안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는 동시에 그동안 생활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와 관찰내용을 함께 기록하였다. 전사된 내용의 분량은 약 50페이지에 이르렀다. 전사된 내용은 연구자들이 함께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III. 자료 분석 및 기술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술

연구 참여자는 1954년 4월 연변에서 태어났다. 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입양된 가정의 부모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연구 참여자가 입양되기 전에 10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이미 입양된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억에 따르면 양아버지는 인물도 잘 생기고 좋은 사람이었다. 간혹 산에서 '노루'를 잡아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하지만 양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살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찬이나 다른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참여자는 14살 때부터 반찬을 하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였다. 산골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였다.

22살이 되어서 시집을 간 후 살림이 나아졌다. 결혼하자마자 첫째 아이를 낳고 3년 뒤 둘째 아이를 낳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예뻐해 주셨다. 항상 동네에 다니시며 며느리 자랑을 하여 친구들이 부러워하였다. 동네에서 주는 '모범 시어머니, 모범 며느리 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누구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잘해서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기술이 좋은 목공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 남편에 대해서는 인정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한다. 목공수 일을 그만두고 나서 시장에서 방세를 받아 살기도 하고 국수, 두부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아는 언니가 태국에 가서 돈을 번다고 하길래

함께 가기로 하였다.

태국에서는 2년 동안 청소와 가정부 일을 하였다. 그때 돈을 꽤 많이 모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벌은 돈으로 중국에서 남은 가족들이 화장품 가게를 열 수 있었다. 더 이상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중국으로 돌아와 보니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쓴 돈 말고는 그 동안 번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화장품 가게를 온 가족이 매달려 함께 하다 돈벌이가 좋지 않아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바이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청소와 빨래 등을 하며 4년간 일하였다. 그러던 중 일하는 곳의 사장이 비자를 말소시켜 중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1년을 기다린 후 소개소를 통하여 한국의 가정집에 오게 되었다.

2. 기술

1) 과정으로서의 시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위하여 거쳐 가야만 하는 길을 의미한다.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목적이 되기 어렵다. 연구 참여자인 조선족이든 H는 현재 육아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시간들이 의미 있기 보다는 가족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가야만 하는 과정이다.

(1) "고생스러웠어도 그때가 행복했지":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했던 시간

H는 중국을 떠나기 전까지 상당히 바쁜 일상을 보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니는 대신 목장이나 산, 논, 시장을 전전하며 '무지 힘들게' 살았고, 결혼한 후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농사와 장사를 하는 등 생계를 위해 고된 일을 이어 왔다. 비록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가사 일로 쉴 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그 시간을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 H에게 행복은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먹고 입히는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다. 물리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행복했던 시간에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이어지는 인정과 애뜻함이 녹아 있다.

에들 키울 때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일 행복했어. 고생스러웠어도 그때가 행복했지. 아들과 딸 모두 인정이 많았어.

H에게 인정(人情)은 고된 시간도 행복으로 바꾸는 에너지이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10여 년이 넘도록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오면서 함께 인정을 나누던 가족은 벽에 걸려 있는 사진과 가끔씩 주고받는 전화를 통해 마주하고 있다.

(2) “낮에 누워 자도 아침인가 싶어 벅쩍 깨지”: 몸은 편안 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시간

H는 가정에 입주하여 일하는 것이 식당이나 다른 곳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고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낮 시간 동안은 긴장의 끈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롭게 여유를 즐긴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 아닌 타국의 낯선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은 육체적 편안함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심리적 불편함이 내재하는 동안 육체적 편안함은 백일몽과 같은 순간에 불과하다.

엄마 아빠 나가서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좋지. 호홉이 잘 통해도 같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지. 내 같이 있으면 답답해. 집이라는 것은 누워 자도……. 낮에도 누워 자도 아침인가 싶어 벅쩍 깨지.

H의 경우 시간의 질은 아이 부모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H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인정이 살아 있는 분위기이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나라에 와서 일하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일하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H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존재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의사소통과 분리된 관계, 분명한 경계로 H를 철저히 타자화시킨다. 가사나 양육 과정에서 기대하고 있는 피드백이나 기본적 예절이 지켜지지 않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H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답답하게 느낀다.

아이 엄마 말이 없어. 너무 말이 없는 것도 탈이야. 말이 있어야 인정이 오가지. 반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해 달라, 싱겁다 어쩌다, 불편한 것도 말하면 내 받아 주잖아. 나는 정말 정성껏 해주지, 무엇이든 다 아끼고 하지. 다 잘 한다고 말 안 해. 나한테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 대화를 해야 성격을 알잖아. 뭘 가지고 오면 잘 가르쳐 주지 않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 아이 엄마는 아이 키우는 데 잘 관여를 안 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말 안 해. 전혀 관여 안 해.

(3) “나 텔레비 보는 낙으로 사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유일한 시간

H로 하여금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텔레비전이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H가 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눈치가 보이

고 마치 낮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오해의 여지를 낳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텔레비전은 아이 부모와 호홉이 맞지 않아 답답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나마 한국인과 한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출구인 셈이다. 한국 사람이 사는 모습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방식도 엿보고 현실을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맛보기도 한다.

OOO 드라마 알아요? 8시 반에 하는데 아이 엄마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는 내 드라마 보고 아이들은 마루에서 텔레비 보고, 큰아이는 엄마가 오면 텔레비를 꺼. 그러면 보다가 왜 텔레비를 끄는지 뭐라 해. 내 텔레비 보는 것 영 신경 쓰여 하는데 나 그것만은 안 되더라고요. 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 텔레비 보는 낙으로 사는데. 말한 적은 없는데 내 싫어하는 것 같아. 쉬는 날에도 아는 언니 대림에서 집을 잡았는데 그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집에는 텔레비가 없어.

(4)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

H에게 있어서 현재의 시간은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단절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시간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이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10여 년 이상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함께한다. 시간에 대한 결정권은 현재 없지만 미래는 변함없이 신체적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버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그제 늘 불안하지. 내 의사가 아닌 집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잖아. 아이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닌지 밤에 자다가도 영 신경이 쓰여. 월급이 밀리면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더러 나가기를 바래서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명확한 계약 기간이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그만 두라고 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일하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참거나 습관적으로 잊어버린다. 분노가 밀려오면 밖에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낮을 익힌 이웃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H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조선족 여성을 고용한 한국 가정이 자신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같은 일을 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너무 화날 때는 혼자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가. 속에 넣지 않아. 내 말해야겠다고 하다가도 지나면 잊어버려. 그 당시 느낌은 안 좋지만 저녁에 좀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은 잊어버려. 한국 사람들이 진심을 몰라주잖아. 한국 조선족 아줌마들 쓰는 패들이 내 진심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어. 같은 모임이 있으면 좋지. 그래. 공간이 있으면 다른 패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2) 경계선 그리고 경계인

경계선은 원래 전투적인 개념이다.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선으로서 공격과 방어에서 설정되는 배타적 개념이다. 만약 그러한 경계가 선이 아니고 면적이나 공간이라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경계면이나 경계공간은 이미 이쪽과 저쪽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제3의 어떤 존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타적인 이쪽과 저쪽은 대체로 이러한 제3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존재에 대한 불만, 나아가 불안마저 느낀다. 경계인은 기존의 경계선을 허문다. 경계인은 이쪽과 저쪽이 모두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사람이다. 다름이 있어야 같음이 드러나고 같음이 있어야 다름이 드러나는 긴장을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애매성의 철학’에서 내 것이 이질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이 내 것과 서로 교차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 바로 생산적인 제3자로서의 경계인이 갖는 철학의 핵심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송두울, 2005.1.19. ‘경계선 그리고 경계인’, 서울신문).

(1) “가족도 아니면서 왜 우리집에 있어요?": 가족과 타인의 경계

‘우리’라는 말은 ‘집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혹은 ‘울’, ‘울타리’의 방언을 의미하며, 울타리는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을 일컫는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이 뜻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같은 경계 안에 있는 개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와 다른 개체, 혹은 집단을 구분하는 선이나 면을 경계선이라 하며, 이쪽과 저쪽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조선족이모의 명칭을 보면 친밀한 가족을 상징하는 ‘이모’와 외국인임을 암시하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즉, 엄마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남다른 친밀감을 안겨 주는 ‘이모’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생활하는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모 앞에 붙은 ‘조선족’이라는 단서는 형식적 친근함 속에 자리하고 있는 배타성과 우리와 다른 이방인임을 가시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족이모’의 명칭이 경계의 개념을 더욱 명료화시키고 있다.

H 역시 일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모’ 혹은 ‘할머니’로 불

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에 속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계선에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같은 공간에서 심리적 경계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으로 연출되곤 한다. H는 이 집에서 ‘어른’ 또는 ‘어머니’와 같은 애정과 인정을 기대하고 명절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의 대소사에 정성을 표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가족은 자신들만의 영역에 H를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럴 때 H는 경계선에 있는 자신을 돌아본다.

하루는 큰아이가 ‘할머니는 왜 우리집에 있어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요’ 하고 물었을 때 기분이 뭐랄까? 좀 그랬어. 한번은 작은아이가 ‘할머니는 힘들겠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니까 아이 엄마가 ‘할머니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하더라고. 내 아이 엄마 아플 때 휴일인데도 쉬지 않고 간병해 주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도 자기들만 먹지 한번 먹어보라고 안 해. 딸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잘 받아 줄텐데…….

(2) “저기에 옷장만 하나 해주면……”: 영원히 머물지 못할 곳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집 부엌 옆에 있는 방. 작은 서랍장, 행거, 바구니에 담긴 화장품, 외투를 걸기 위해 방문에 붙인 고리, 박스 위에 놓인 텔레비전, 벽에 붙어 있는 가족과 손녀 사진. 이것이 H가 머물고 있는 방의 풍경이다.

방은 마음에 들지. 저기에 옷장만 하나 해주면. 내 옷을 걸 데가 마땅치 않아.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기도 하고 행거에 애들 옷하고 같이 걸어 놓기도 하고……. 옷장 하나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이 방은 H가 떠나도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 와서 차지하게 될 공간이다. 가족이 아닌 고용된 타자를 위해 마련된 곳이므로 주인은 특별한 가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H가 아쉬워하는 ‘옷장’ 하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옷장은 가정의 느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요소일 수 있다. 행거와 고리에 걸려 있어 쉽게 가방에 담을 수 있는 옷가지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옷장 안에서 계절을 여러 번 넘기도록 걸려 있기를 바라는 것은 H의 바램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조건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조선족이모,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실한 욕구의 한 단면이라고 판단된다.

(3) “무엇이든지 불편해”: 부속적 존재

H는 고용된 가정에서 24시간을 함께 거주하면서 집안일

과 함께 두 아이의 양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는 일반 가정주부나 틈틈이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친족 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살림도 익숙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져 간다. 일과 양육이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을 한 집에서 함께 보냈지만 아이 엄마와 아빠의 존재는 여전히 불편하고 낯설다. 그들의 집에서 H는 식구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이방인이 된다. 그들의 가정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다 보니 소리 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등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다.

아이 엄마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 불편해. 생각이 그래.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와도 마음대로 먹는 것이 미안하고 그래. 나는 지금도 안방 문이 열려 있으면 화장실도 들어가기가 불편해. 밤에 물소리도 내면 불편해. 물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할까 봐……. 아이 엄마가 마루에서 자면 다니는 것도 불편해. 내 방에 불이 켜 있으면 나도 불편해. 전기 아끼니까 전기 안 아낀다고 할까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 엄마는 응대를 안 하나까…….

H는 이 가정에서 가장 불편하고 답답한 것으로 ‘호흡이 안 맞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에게 말, 즉 대화는 인정을 주고받는 방식이고,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H는 아이 엄마가 자신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도외시함으로써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단절은 곧 의미 있는 관계의 단절을 뜻한다. 더 나아가 한 공간 내에서 각자의 위치를 결정짓고 그것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H는 불편함으로 해석한다.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맞추어 나간다. 그런 점에서 H는 이 집에서 가구나 가전제품처럼 필요하지만 가족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부속적 존재이다.

(4) “아들이 오면 집을 잡아가지”: 우리집을 꿈꾸며

집의 사전적 의미는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을 의미한다(표준국어사전, 1999). 그런 의미에서 집의 구성 요인은 가족원으로 구성된 가정이 된다. 가족이란 일차적으로 부부, 부모와 자식, 또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집이란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원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볼 때 H는 혈연관계가 아닌 고용관계에 의해 집이라는 공간에 일정 기간 함께 머물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H에게 이 집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일터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 공간을 상실함으로 인해 한국에

서의 삶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딸이 가끔 쉴 때면 H가 일하는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쓴다. 잠시 남의 집에서 우리집의 생활을 누리보면서 언젠가 흩어져 있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자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집’을 꿈꾼다.

내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집을 사서 아들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이지. 내 여기 영주권 신청 안 했는데 아들이 신청해 놓으라고 했어. 이번에 딸이 오면 우리 조카하고 일단 집을 잡기로 했어.

H는 궁극적 목표인 집을 잡기 위해 돈을 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 구성원이 돈을 모으기 위해 집을 떠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가족이 돈을 버는 목적은 언젠가 집을 마련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공간에서 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조선족이모의 꿈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뒷받침이 마련될 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까지 그와 식구들의 흩어진 삶은 계속될 것이다.

3) 현실과 기대

현실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현되어 있는 것, 능력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것, 즉, 실제로 있는 것의 성격이자 성질이다. 이에 반해 기대란 어떠한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감정이다. 기대가 깨지면 실망에 빠지게 된다(위키백과, 2008). H는 체험하고 있는 현실과 이상적인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 비록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 가정의 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부여를 기대한다.

(1) “내 아이들이 눈에 밝힐 거야”: 일하는 할머니와 할머니
H가 큰아이에게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인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습은 소홀함이 없다. 아이의 숙제를 보아주는 과정 또한 적극적이다. ‘아이’가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에게 관심이 많지만 아이에게 받는 느낌은 일하는 할머니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H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마치 여느 가정의 할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존댓말을 하지 않을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큰아이는 정말 착해. 말을 잘 들었어. 요즘은 말 잘 안 들어. 다 안 들어. 이것 하자고 해도 싫다. 다 싫다고 해.

한번은 큰아이랑 같이 영어하는 애인데 우리집에 와서 밥 차려주니까 할머니는 안 드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 없어. 애들이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하는 것 없어. 응당 할머니는 안 먹고,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사가져 와도 자기들만 먹지. 한번 먹어보라고도 안 해.

H는 비록 한국 가정에서 일하는 조선족 할머니로 생활하지만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아이의 엄마가 큰아이의 영어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숙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 큰아이와는 일반 할머니와 같은 친밀감을 보여 주고 싶지만 큰아이로부터 받는 느낌은 단지 일하러 온 할머니일 뿐이다. 중국에서 아이들이 어른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큰아이가 반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면 H가 기대한 정체감과 기대가 무너진다. 그럴 때마다 H는 부모가 아이 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잘못 모범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작은아이는 3살 경부터 2년 반 동안 돌보아 와서 그런지 H를 잘 따르고 할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때로 '할머니가 가족 중에서 제일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H는 이런 작은아이의 모습을 '인정스럽다'고 표현한다. H 역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애정이 자라고 있었음을 인식한다.

내 나가야 해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내 저절로 눈물이 흘러. 내 아이들이 눈에 밝힐 거야.

H는 작은아이를 통해 일하는 할머니 이상의 존재 가치를 경험한다. 작은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자주 표현할 정도로 인정이 많다고 생각한다. H에게 '인정'은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정은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인정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작은아이이다.

(2) "나를 다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 무관심과 무시

H는 아이 엄마와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로 정의한다. 아이 엄마는 평소에 H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심지어 생활에서 필요한 질문을 했을 때에도 대답을 잘 해 주지 않는다. H와 아이 엄마가 서로 언어적 차이를 느낄 때 대화는 더욱 단절된다. 퇴근하여 돌아올 때 달려 나가 인사를 하여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집안 일이나 양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도 한다. 마음

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럴 때면 H는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하지만 관계가 더 악화될까 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참는다. 음식이나 양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H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호흡이 잘 맞지 않아' 답답하다고 느낀다. H는 아이 엄마가 자신을 단지 '일꾼', 돈 벌기 위해 여기 온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다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한번은 믹서기를 사 왔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내 잘 모르면 내 가르쳐 주어야 하잖아. 뭘 가지고 오면 잘 가르쳐 주지 않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 아이 엄마는 아이 키우는 데 잘 관여를 안 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말 안 해. 전혀 관여 안 해. 내 생각에는 진짜 일꾼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할 말은 하고 인사 같은 것 하면 제대로 받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밖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대답도 못해줘? 오면 내 달려 나오면 그냥 애들만 보지.

H는 아이 아빠를 무관심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아이 아빠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H는 아이 아빠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가 바쁘게 일하고 집안일에 다소 무관심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아이 양육에 있어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아이를 통해 재확인하려는 모습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는다.

아침에 작은아이가 사진 가져가야 한다고 떼를 썼지.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서 텔레비전 사진을 찍어오라고 한) 이야기를 다했어. 다음날 해도 된다고 해서 난 작은 아이 엄마 오면 얘기하려고 했지. 그런데 애가 떼를 쓰니까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면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한테 내가 한 이야기를 전하면 되잖아. 아이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할머니 잘 모르니까 니가 말해라'면서 아이가 말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H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할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시간이 되면 할 계획을 모두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와 아빠는 H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H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 물어보고 충분히 대답할 시간을 주기를 기대한다.

4) 다름과 낯설음

다름은 어떤 하나가 더 우월하고 다른 하나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름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 대상을 모두 경험한 자이다. 기존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은 새로움과 긴장이 감도는 낯설음이다. 자신이 오랫동안 적응해온 중국 내 조선족 문화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또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H에게 한국은 가까우면서도 다르고 낯선 곳으로 경험된다.

(1) “한국을 제일 좋아하지”: 한국이라는 나라

H에게 한국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병원 치료를 하고 손녀를 공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국은 중국 가족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였지만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가장 큰 이유는 말이 통해서 편안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집에서는 간혹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조선족과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제일 좋아하지. 월급도 높고, 말이 통하고, 깔끔하고. 여기는 나라가 깔끔하고 일거리가 많잖아. 돈만 있고 가게 같은 것 있으면 여기가 살기가 좋지. 우리 한국에 오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 경제가 물건이 비싸잖아.

한국에서 내 돈을 벌어서 우리 아저씨 살렸지. 우리 아저씨 간암이라고 해서 약값이 무지 많이 들어갔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우리 아저씨까지 세 명이었는데 우리 아저씨만 살았지. 그이들은 돈이 없어서 먼저 갔지.

(2)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아이를 키운다는 것

H는 양육에 있어서 중국이 많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양육방식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 양육과 가사일을 하다보면 다르다고 느끼는 점 또한 종종 발견하게 된다. 다름은 새로운 발견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적응해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의미한다. H 역시 양육 경험과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회피하고 한국 가정의 그것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① 배려와 예의

H에게 있어서 올바른 삶의 모델은 예의바르고 착한 사람

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한마디로 버릇없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어른에 대한 존경과 예의, 상호간의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H에게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만 버릇없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예의바르고 착해야 해. 중국 사람은 아이들 때부터 남을 위하는 정신이 있어. 여기는 공부는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 한국 사람은 우리를 예의 없다고 해도 내가 여기 보았을 때 예의 더 없는 것 같아. 우리 중국에서는 이상(연장자)에게 응응 못해. 여기서는 부부간에도, 할머니에게도 반말해. 한국 부모들, 아이 행복하게 키우지. 버릇없게 키우는 것은 다 그러니까 법이 없잖아.

② 공부와 놀이

H는 한국의 아이들이 자유도 없이 공부만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벌써 그래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H에게는 아이들의 공부나 놀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화에 따를 뿐이다. 숙제를 하지 못해 엄마에게 야단맞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늘 숙제를 점검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도 한국의 엄마들처럼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집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녀도 내버려 둔다. 밖에서도 못 노는데 집에서라도 놀아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바깥놀이와 공동체놀이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것이 못마땅하기도 하다.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중국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큰아이도 태권도 해야지, 영어 해야지. 이제는 자유를 주고 애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 난 애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난 큰아이 불쌍해. 자유시간이 너무 없어. 큰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혼나기 때문에 숙제에 신경을 많이 쓰지.

노는 방식도 달라. 중국에서 저렇게 장난감이 많지 않아. 밖에 나가 달리면서 놀지. 내 생각에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면 머리는 더 좋아지겠지. 중국은 아파트 아니니까 모여서 놀아. 여기서는 다 같이 안 놀고 친한 사람과 놀잖아.

③ 양육과 언어

H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기준은 잘 먹이는 것이다. 이 집

에서도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기쁨과 염려가 교차한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먹여 주곤 한다.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잘 먹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그 대신 식사하는 자세와 아이 스스로 먹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양육 방식의 차이로 아이 엄마와 갈등을 느끼면서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어가 통한다고 하지만 단어의 사용이 중국과 조금씩 달라 서로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의 무게는 이 가족을 통해 증가한다. H가 경험하는 불편함은 쉽게 간과되는 반면 이 가족이 H로 인해 경험하는 언어적 불편함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H의 언어는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고쳐야 하며, 언어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은 H의 몫으로 인식된다.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하잖아. 제일 힘든 것이 아이들이 밥을 만족스럽게 먹지 않는다는 것이 내 항상 마음에 걸려. 요전에는 닭튀김을 했는데 잘 안 먹어. 그래서 아이들 따라다니며 먹여 주면 엄마는 식탁에서 먹으라고 해. 먹여 주지 말라고 해.

말이 많이 다르지? 아이들 엄마 아빠 말은 영 힘들고 아이 엄마 아빠도 영 힘들어 해. 그래서 할머니 모른다고. 오해가 생겨. 내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그냥 놔둬. 애들은 말 잘 통해. 큰아이 나를 따라 하는 것 있어. 나는 '아까' 하는데 큰아이 엄마 '아까' 해. 아이 엄마가 뭐라 하면 아이가 고쳐.

(3) “내가 키우는데……”: 책임과 인정

나의 아이가 아닌 다른 가정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선택한 일이지만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애정과 책임을 느낀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습관이나 특성에 대해 더 민감하게 살피게 된다. 심지어 아이들의 손발이 찬지 따뜻한지, 식습관이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잘 자랐다고 인정을 받으면 자부심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키우는 내 아이들'이라는 애정과 책임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H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잘못 아이를 키웠다고 할까봐 두렵다.

인사 같은 것 제대로 안 하면 할머니 잘못 키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지. 다 내가 키우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 동네 사람들이 우리집 아이들이 착하다고 하면 내 기분이 좋지? 작은아이 이 닭였는데 아이 아빠가 이 닭

였냐고 물어 보면 내 할 일 잘 안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좀 그래.

H는 아이들의 양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행동을 잘못하거나 많이 먹지 않아 키가 크지 않으면 그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정에서 입주가사·육아도우미로 생활하는 '조선족이모'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조선족이모로 살아가는 개인의 체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와 약 2년 동안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라포(rapport)와 신뢰가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양적인 연구나 단기간의 인터뷰로는 얻기 힘든 개인의 섬세한 체험과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롭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이모가 체험하는 현재의 시간은 낮에 누워 자도 아침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게 되는 불편한 시간이며, 즐거움을 누리는 유일한 시간은 TV를 시청하는 시간이다. TV 시청을 통해 조선족이모는 현실의 불편한 시간을 잠시 잊고 즐겁거나 슬픈 다른 시간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이모들의 오랜 TV시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 올려진 한국 엄마들의 글로 볼 때, TV는 낯선 가정에서 조선족이모로 살아가는 이들이 매순간 느끼는 불편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족이모가 생각하는 미래의 시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피고용인인 그들의 미래의 시간은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단절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한국 가정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한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은 같은 일을 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둘째, 조선족이모의 체험된 공간은 자신이 떠나도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 와서 차지하게 될 자신의 '웃장 하나 없는' 불

안정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족이모의 주거공간은 식구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경계에 있는 자로서 고용인의 가정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애쓰다보니 자신의 삶을 사는 공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체험된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조선족이모로 살아가는 것은 조선족이라는 이방인의 특성과 생활을 함께 하는 이모라는 상반된 두 개념이 혼재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른 외국 국적인 이방인이며 가족이 아닌 남이지만 '이모', '할머니' 등 가족의 호칭으로 불리며 생활을 함께 하는 애매모호함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된다.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본래의 가족과는 다른 곳에 있는 존재이며, 신체는 가정이라는 경계 안에 있지만 어떤 순간에 느끼게 되는 가족 밖에 머무는 존재라는 점에 대한 양가감정을 겪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족이모는 이러한 애매모호함과 경계를 넘어서서 보다 가족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자신을 고용한 아이의 엄마가 자신에게 딸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등 가족의 일원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조선족이모는 고용주인 부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한 방법은 바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연구참여자는 고용주와의 '호흡이 안 맞음'을 지적하면서 아이 엄마가 자신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도외시함으로써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대화의 단절과 의사소통의 불편함, 그리고 무관심은 조선족이모와 가족들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가 제한되고 단절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가정에서 살고 있는 한 조선족 여성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족이모가 한국사회에서 한 가정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이 고용되는 가정에서 조선족이모와 지원을 받는 아이의 부모가 공동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선족이모의 문화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가사도우미에 비해 비교적 우리나라 문화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조선족이모 역시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므로 우리나라 가정의 생활문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선족 이모에게 한국의 생활문화와 양육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각자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한국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기술과 한국의 가정문화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시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조선족이모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대해 이해하여 왜곡된 생활방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중산층 이하의 가정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양육가정에 대한 환상과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의 사회 환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조선족이모가 한국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쉬는 날인 주말을 길거리에서 배회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쉬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은 일을 하는 조선족이모들과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지지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이모가 한국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가정의 조선족이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을 시작하는 것도 조선족이모를 두고 생활하는 한국가정과 조선족이모 양측 모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덕자(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이선미(2007).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2), 119-131.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8), 1-17.
- 림화(2005). *제한 조선족여성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희(2006). 가사/돌봄노동의 상업화와 여성의 초국가적 이주 노동. *여성정책논집*, 6(0), 11-28.
- 박준성·전미연·허성호·리나·정태연(2009). 한국내 조선족 여성의 이주동기와 일-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 430-431.
- 손은록(2005).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터넷 <http://www.siternet.co.kr>.
- 안혜옥(2007).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모넷 <http://www.iiiiimo.net>.

- 이주영(2005).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이주자의 가사노동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03). 한국 내 조선족 여성노동자에 관한 질적 연구: 생활사 재구성 방법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웅(2005).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 정기선 · 유명기 · 김민정(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금혜(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라금(2008). 여성 이주 노동의 맥락에서 본 보살핌의 상품화. *시대와 철학*, 19(4), 231-264.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경향신문(2007. 10. 24.). 제2의 엄마 '조선족이모'들, 제3의 혈육으로.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 Creswell, J. W.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외 3인 역. 서울: 학지사.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신경림 · 안규남 역. 서울: 동녘.

접수 일 : 2009년 11월 15일

심사 일 : 2009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2월 10일